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에 우리은행 재선정

8월부터 3년간 외국환 출납·외화계좌 관리 수행...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외화금고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 협력에 나선다. <본보 7월 15일자 6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4일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자와 관련한 외국환 출납업무와 외화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금융기관이다. 2026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671조 원이며, 이 가운데 약 50%인 931조 원이 해외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우리은행을 외화금고은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4일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

으로 최종 선정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년이며, 이후 연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에 이어 다시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외국환 업무 전담 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단과의 대면 협업을 확대하고 외환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며 “2021년에 이어 다시 선정된 우리은행과 함께 외화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금의 해외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K-방산 이끌 혁신 스타트업 모집

중기부, 군·방산 수요기업과 협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위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의 챌린지·방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인 ‘모두의 챌린지·방산’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방산’은 군과 방산 분야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혁신 스타트업과 연계해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방산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할 데 이어 이번에는 50개 안팎의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검증(PoC)

과 시제품 제작 등 협업 과정 수행을 위한 사업과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민관공동기술사업화사업 등 후속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업은 스타트업 모집과 서류평가를 거쳐 군 및 방산 수요기업과의 미팅(Meet-up)을 진행한 뒤 협업 계획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세계 방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2조7,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안보 수요 확대에 따라 방산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근 기자

기업 인력난 해소 협력 강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15일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주고용노동지청,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캠틱종합기술원 등 유관

기관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주)폴 무인드라는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북지역 노동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인력수급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기업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근 기업들의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업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와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전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석·박사급

연구원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총 8,3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번 2차 모집에서 2~3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월세와 주택 대출이자, 정주비 등 3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월세는 임차료의 8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 또는 매입을 위한 대출은 1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의 이자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북으로 이주한 연구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의 정주비도 지급한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폭염 대비 전기안전 종합대책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15일 여름철 전기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무대위험터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800여 곳을 선별하고, 차단기 이상 여부와 전원선 손상 등 전기설비의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0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대규모 정전사고에 대비해 준공 후 25년 이상 된 아파트 1,000개 단지의 변압기와 저압배전반 등 주요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도 진행했다.
공사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전기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고, 실외기의 먼지를 제거해 환기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며, 제습기와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큰 전기제품은 하나의 멀티탭에 함께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상근 기자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진원은 오는 8월 20일 개최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50개사를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납품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과 새만

금개발공사를 비롯한 23개 주요 공공기관, 남원용성고등학교 등 17개 학교가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은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간 1대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은 사전에 공개된 40개 공공기관의 구매 희망 품목과 예산을 확인한 뒤 상담을 희망하는 기관을 최대 5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별 최대 3회의 구매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공기관 구매 희망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약 50개사다.
/오상근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은행 전북본부 2층 강당에서 ‘2026년 지역경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해 지역경제 정책 수립과 전북의 경

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북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 안정용 교수의 개회사와 김경욱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후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전북지역 경제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